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주철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8. 16.

발 의 자 : 주철현·위성곤·윤재갑
민병덕·이병훈·송기현
정일영·우원식·이동주
임종성·서삼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여유시간의 증가 등에 따라 여가활동을 즐기려는 인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.

그런데 현행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대부등”이라 함)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,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시행령에서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 대부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·인가·승인·지정·등록·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 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되어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두 법률 간의 행정처분 충돌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).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전단 중 “받은 자”를 “받은 자(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32조에서 같다)”로, “받은 산림”을 “받은 산림(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전단 중 “받은 자”를 “받은 자(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32조에서 같다)”로, “받은 산림”을 “받은 산림(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3조(자연휴양림의 지정) ① (생략)	제13조(자연휴양림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(사용·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)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대부등”이라 한다)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-받은 자(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32조에서 같다)-</u> ---- ----- ----- <u>받은 산림(받으려는 산림을 포함한다)-</u> ----- -----. ----- -----.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산림욕장등의 조성) ① (생략)	제20조(산림욕장등의 조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	② ----- ----- <u>받은 자(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32조에서 같다)-</u> -----

